

자연에서 얻은 삶의 자유 소로우의 「숲속의 생활」

— 사업가 高大煥씨

지금 독서중 여성용 장신구를 가공, 수출하는 오퍼상 雅瑞무역의 高大煥사장(34)이 요즘 읽고 있는 소로우의 「숲속의 생활」(정성호 역, 1987, 샘터)은 그에게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 책이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세상을 보는 시각을 고치게끔 하고, 삶을 사는 자세를 다시 가다듬게 해준 책이다.

그가 처음 이 책을 만난 것은 10여년 전 영문학을 공부하던 대학시절, 英文版으로였다. 얼마전 우연히 번역본을 발견해, 이 책이 젊은날의 그에게 가했던 강렬한 충격을 되새겨보고, 또 번역문장의 색다른 맛도 음미해볼 겸하여 다시 꼼꼼히 읽고 있는 중이다.

“다시 읽어봐도 제가 처음 이 책을 대하고 느꼈던 강렬한 충격이 결코 誤讀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 발견입니다. 오히려, 10여년 동안 점차 바래져 왔을지도 모르는 그 충격을 이번 기회에 좀더 밀도있게 肉化시키게 됐습니다.”

「숲속의 생활」은 애머슨 등의 미국 초월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던 소로우가 1845년 7월부터 2년2개월간 매사추세츠주의 윌든 호숫가에 통나무집을 짓고 살면서 ‘개인주의’를 실험한 생활의 보고서. 외부와의 일체의 접촉을 끊은 채 스스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고, 독서를 하고, 호수와 숲속의 자연에 어울리던 자급자족의 생활을 예민한 시적 감수성으로 표현한 책이다.

“「숲속의 생활」을 통해 소로우가 증명해 보이려고 한 개인주의의 가능성은 이기주의와는 구별됩니다. 그것은 뭐랄까,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자아의 자세 같은 것입니다. 소로우는 이 책에서 극도로 금욕적인 간소한 생활이 오히려 진정한 향락을 위한 최대한의 전제이며 준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숲속의 생활」은 고사장에게 긍정의 자세를 가르친 책이 된다. 남을 부러워하고 남의 그릇을 탐내기보다는 ‘내 그릇’에 만족할 줄 아는 긍정의 자세, 그 긍정의 위대한 힘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외국어실력과 구변을 밑천으로’ 치열하기 이룰데 없는 무역전쟁에 뛰어들지 2년만에 벌써 연간 4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능한 사업가인 고사장이 요즘 「숲속의 생활」과 함께 읽는 책은 루소의 「고백록」. 「숲속의 생활」이 혼자 사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책이라면, 「고백록」은 어울려 삶에 있어서 자기자신을 남에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솔직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데서 또다른 자극을 받는다고.

그러나, 그런 독서충격과 자극의 소중함을 느끼는 한편으로, 그는 스스로의 독서생활에 불만이 많다.

“사업이랍시고 벌여놓은 일들 때문에 예전처럼 ‘계획독서’를 할 수 없습니다. 전집이라든가, 한 작가나 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체계적인 독서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말았죠. 그러다보니까 그때그때 알맞은 책을 찾아 읽게 되는데, 제 독서습관이란 게 좀 ‘오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책은 이미 소문으로 다 알아버린 것 같아 선뜻 손이 가지 않거든요.” — 강철주 기자



자유에 이르는 길 鄭乙炳의 「까토의 자유」

— 무역상사원 丁楊春씨

지금 독서중 30여평의 자그마한 사무실에도 무역전쟁의 뜨거운 열기는 있었다.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소리와 상담을

원하는 업자들 틈에서, 丁楊春(24)는 민첩하고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나간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본사를 둔 의류업체 마이클 제럴드 주식회사의 서울지사인 이곳은, 국내에서 생산된 스웨터만을 전문으로 구매해가는 전형적인 소규모 무역사무소. 그러나 올해 구매액이 1천5백만불을 넘을 예정으로 있어, 국내 섬유업체로서는 만만치않은 바이어다.

하루 24시간, 국제무역의 민감한 동향을 몸으로 느끼며 생활하는 정양춘씨는 따라서 책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다. 그러나 제품 검사차 지방공장을 가게 될 경우가 많아,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곤 한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鄭乙炳씨의 중편소설 「까토의 자유」예요. 대학시절에 이미 읽었던 작품이지만, 다시 읽으면서 학생때와는 또다른 감동을 느껴보고 있어요.” 다작가로 손꼽히는 정을병씨의 비교적 초기작품에 속하는 「까토의 자유」(1976, 瑞音出版社)는, 금욕주의적인 완성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는 까토와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케사르, 진리를 대표하는 키케로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에게 있어 자유란 무엇이며 어떻게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탐구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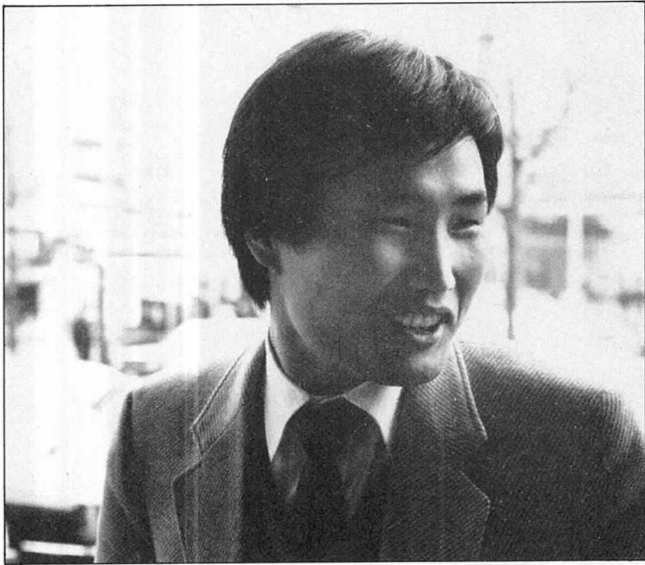
허영과 사치,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로마제국, 혼탁한 정치의 와중에서 까토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번민한다. 로마의

황제로 올라서려는 케사르의 정치적 위협을 맞아 키케로가 ‘현실이란 곧 진리다’라고 말하며 케사르의 존재를 인정하려는데 비해, 까토는 ‘세상의 자유란 반드시 정치적인 자유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결국 자살에 이르고 만다.

“확장시절에는 까토적인 자유에 깊은 공감을 느꼈지요. 그러나 이제 사회인의 눈으로 작품 속에서의 그를 보면서, 그의 자세가 지나치게 방관자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회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여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자유를 획득하려는 자세가, 특히나 우리의 정치사를 되돌아 볼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군요.”

대학에서 산업미술을 전공한 정양춘씨가 무역업체로 뛰어들지는 약 3년이 된다. 현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제품의 질과 디자인을 적절히 판별해 내는데 미술학도로서 쌓은 감각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나이가 아버지뻘되는 업자들과 상담을 하느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요즘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요구할 줄도 알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무역시장의 조류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 외국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나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수출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정양춘씨는 말한다.

좀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신의 독립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는 그는, 사회참여를 중시하는 적극적인 현대여성이다. — 오애리 기자



지혜의 언덕에 이르는 마음의 경이 金雲學 편저 「젊은이를 위한 般若心經」

— 쌍용양회 레미콘 영업부 梁東哲씨

지금 독서중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향하던 젊은날을 잊을 수 없는만큼, 그때 읽었던 책들의 감동 또한 오래 남아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준다.

쌍용양회 레미콘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梁東哲씨(29)는 대학 2학년 말의 결단이 오늘로의 첫발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때 읽었던 「젊은이를 위한 般若心經」(金雲學 편저, 1980, 삼성미술문화재단)은 항상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책이 되었다고.

어려울 때 읽은 책이어서 그런지, 양동철씨는 생활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 책을 손에 든다. 지금 읽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책이다.

“대학 2학년말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지만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도 사회구원을 통한 개인구원을 주장하고 있던 탓에 사회운동, 정치운동에 참여하자는 소리가 드높았었습니다. 개개인의 결단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행동으로 표출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마음이 평온해지고 사물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그가 불경을 읽고 정신적 고민을 치유했다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컬하다. 열렬히 기도를 했다는 그가 불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낙산사를 여행하다 알게 된 紅蓮岩의 전설때문이다.

“100일기도를 올리면 부처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의상대사는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보지 못한다면 자살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나 끝내는 못보게 돼

홍련암에서 투신을 합니다. 그때 붉은 연꽃에 싸인 부처가 나타났다고 해요. 의상대사의 놀라운 불심에 감동을 받았고, 그 당시의 제감정과 일치되는 것 같았어요.”

「반야심경」은 「반야바라밀다심경」의 준말로 「지혜의 언덕에 이르는 마음의 경이」를 의미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쏘이고, 이 쏘을 깨치고 연마하면 고통과 분별, 생사가 없는 이상의 세계인 피안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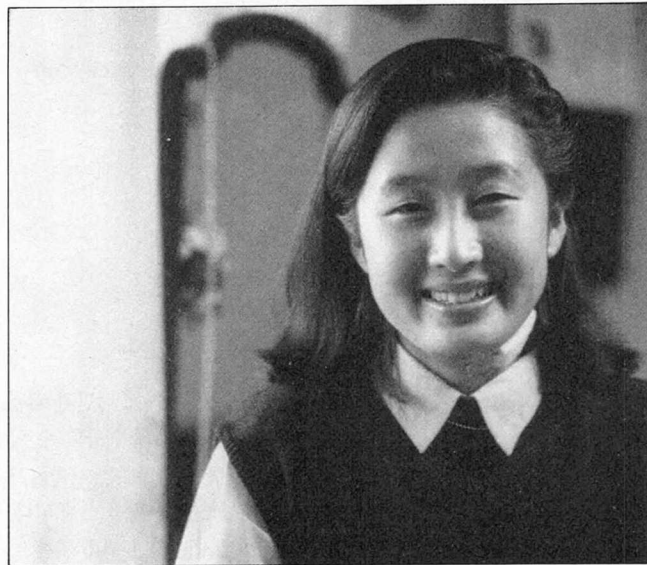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은 쏘이라는 사상은 양동철씨의 생활을 항상 너그럽게 해준다.

“영업부의 일이란 인간과의 끊임없는 관계입니다. 주로 대금회수, 그 중에도 악성화된 부실채권의 회수가 많다보니까 때때로 남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웅다웅하다보면 제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가 생기죠. 이때는 쏘 사상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랠니다.”

퇴근 이후, 꿈속까지도 침범하는 업무 속에서 양동철씨는 아침, 저녁 한시간씩을 책 읽기에 투자한다. 경영전반에 관한 책을 주로 읽지만, 그밖에 대학시절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읽는 것이 그의 올해 목표다.

부지런함, 겸손함, 감사함을 판매비결로 꼽는다는 양동철씨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생활에는 분명 그의 왕성한 독서가 뒷받침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민옥경 기자



미술을 보는 안목 넓혀주는 곰브리치의 「西洋美術史」

— 럭키금성 기획조정실 任京淑씨

지금 독서중

“미술작품이라고 하면 흔히 고가품이나 화려한 전시장 등을 연상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이러한 일종의 경외심은 미술을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예술로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任京淑씨(25·럭키금성 기획조정실)는 지금 읽고 있는 E.H. 곰브리치의 「西洋美術史」(崔昶 역, 1985, 열화당)를 ‘고마운 책’이라며 소개한다. 그것은 미술작품이 결코 신비스런 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사물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 자신이 갖고 있던 경외심을 떨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임경숙씨가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시절 이른바 ‘민중미술’로 인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학생기자 시절, 미술에 관한 시리즈를 기획했었죠. 그 당시 이른바 민중미술을 주장하는 작품들이 나와 문화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이 계기였는데, 왜, 무엇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시리즈를 끝낸 이후에도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임경숙씨는 그때부터 미술관계서적 목록을 작성하여 계획적인 독서를 시작한다.

“우선은 한국미술사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김원룡교수의 「한국고고학연구」 「한국미술사」 등을 읽었습니다. 서점에서 한국미술에 관한 책을 찾다가

저자·역자명만을 보고 이 책을 구입했는데

제 예감이 적중했어요.”

「서양미술사」는 미술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초보자들을 위한 미술사 입문서. 서양미술사의 방대한 흐름을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심오한 차원에까지 탐구해 들어감으로써, 학계에 커다란 반향과 찬탄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유명한 책이다.

이제 임경숙씨는 미술작품의 흐름이 전통과 혁신이 엇갈리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책에서 말하는 ‘미술가의 위치변화는 그 개인의 체험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굳이 민중미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특별히 관심을 둘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예술이 시대의 표현이란 점이 동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곰브리치는 만약 미술작품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이고, 모든 미술작품에는 강한 주관의 반영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회상황에 근본을 둔 것으로 표현된다고 말합니다. 반 고호의 경우도 변혁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해요. 큰 맥락속에서 미술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 사고의 편협성을 지적해주더군요.”

대학졸업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술관계 독서는, 아직도 기본서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지만 사건관계책까지 확대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애정’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임경숙씨는 한국의 기층문화를 연구하는 동우회인 民學會의 회원이기도 하다.

—민옥경 기자